

新 무소유 시대
일본 저성장 풍속도(6)

‘無가족사회’ ‘無緣사회’... 자식대행 서비스까지 인기

(무연)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사할 공동묘 앞에서 승려가 추모공양을 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일본 '영대공양' 종합포털사이트

2011년 일본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엔딩 노트' 열풍이 불었다. 60대 남자인 주인공은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위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그는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 노모를 모시고 여행 가기 등 죽기 전에 할 일을 '엔딩 노트'에 적고 행한 뒤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영화가 인기를 끈 이유는 내용이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세상과 작별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했다.

2010년 1월 NHK가 방송한 '무연(無緣)사회'에 따르면 가족 없이(또는 거의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사망하는 무연고 시신이 연간 3만2000건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2010년 무연고 사망자가 636명이었다. 아시아신문도 "가족(家族) 사회가 막을 내리고 '고족(孤族)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

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30년이 되면 독신 가구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무연 사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것이 '유품처리 대행업'.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 회사 '키피스'는 고인이 죽은 후 집 정리 청소뿐 아니라 유품 배송 및 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0년엔 한국에도 진출했다.

요지 관련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영대(永代) 공양'(영원히 공양을 드리고 추모한다는 뜻) 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기 전에 봉안당이나 공동묘지와 계약해 자신의 사후를 자신이 아닌 남이 평생 관리해주는 것이다. 이사가 거의 없는 사찰에서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매달 또는 1년에 한 번 추모공

양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536개가 영업 중이며 공양 빈도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홀몸노인을 위한 '센서' 서비스업도 있다. 현 관문에 센서를 설치한 뒤 1주일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업체 직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죽은 뒤 아무도 시신을 찾으려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신청이 많다고 한다. 여기에 자식을 대신해 은행 금융업무, 집 안의 각종 수리 등을 대신해주는 '효도 대행 서비스'도 인기이며 유료 전화인 '말벗 서비스'도 인기다. 10분에 1만 원을 받고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다.

홀몸노인이 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노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사생활을 존중받으면서도 외로움을 줄일 수 있게 집

과 공동주택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는 일종의 '친화된 노인정' '어르신 셰어 하우스'가 그것.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은 공동주택에서,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지내는 식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 부모나 형제자매거리 근거리에 사는 '따로 또 같이 가족'이 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997년과 2009년 일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 안에서 편도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가족 비중이 1997년 38%에서 2009년 47%까지 늘었다. 반면에 당일 왕복이 불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은 1997년 19%에서 2009년 14%로 줄었다. 고독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관계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석주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정리=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아베 모델 아닌 안중근 모델 활용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해야”

日 '東亞 영토문제 심포지엄' 참석
김영호 한일지식인회의 공동대표



김영호 한일지식인회의 공동대표

지난해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관련해 일부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일본의 지식인들과 지지 성명을 내놓은 한국 중국 대만의 지식인들이 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평화의 바다를 향해-동아시아 영토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7일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촉발한 일명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한국에서는 김영호 한일지식인회의 공동대표(단국대 석좌교수·사진)가 참석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전 주중 일본대사 등 일본 내 주요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표는 2010년 '한일 경제협력은 무효'라는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4일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만난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아베 모델'이 아니라 '안중근 모델'로 동아시아에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모델은 뭔가.
“안 의사는 민족주의자의 틀을 벗어나 더 큰 틀인 동아시아주의로 한국의 독립을 추구했다. 마지막 사형장에서 '동양 평화를 위해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시민사회는 국권(國權)에 민권(民權)을 내주는 대신 식민지 개혁의 특권과 우월감을 누렸다. 안 의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과 싸우고 중국 러시아 미국과 싸우면 더 많은 젊은이가 군대에 가피를 흘려야 하고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결국 망한다는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것도 일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분쟁의 전초지였던 뤼순(旅順)을 평화협력의 모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와 정반대가 '아베 모델'이다. 아베 총리는 영토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국민을 보수화하고 이를 군비 확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

면 여기저기서 군비 확충 경쟁이 벌어지고 다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면치 못한다. 동아시아 평화 협력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은 왼쪽에서 서면 중국의 변방이다. 오른쪽에서 서면 미국과 일본에 이은 변방이다. 하지만 양자가 아니라 한중일 공동체를 추구하면 한국이 한반본이다.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다. 그런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선두에 세워야 할 인물이 안 의사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모네가 유럽 공동체의 아버지라면 안 의사는 동양평화의 아버지다.

2009년 일본 진보정치인 세카이(世界)에 실을 안중근론 원고를 달고하면서 안 의사 사상에 너무 감격해 바로 와타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이들에게 안 의사의 정신을 설명한 뒤 '내년이 한일 합 100년인데 한일 지식인들이 이를 주요선언하자'고 제안해 이듬해 성사됐다.

이후 중국에서 장이머우(張義繡) 감독을 만나 당시 영화는 참 좋는데 중화주의가 너무 강하다. 큰 중국이 중화주의를 들고 나오면 한국 일본 베트남은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럴수록 아시아는 분열되고 중국은 고립된다. 아시아를 끌어안는 영화, 안중근 영화를 만들라고 했다.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일 갈등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 일본 학자들이 이미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게 일본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일본의 보수적 국가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친한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상대가 한국이 아니더라도 할 일을 했을 것이다. 이들은 세계 양심 세력과는 연대하고 있다. 한국이 영토나 인권 문제를 한일 간의 대결 구도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도쿄=백근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기고 | 스마트 사회, 스마트 정부

필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스마트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아람의 불'과 최근 터키와 브라질의 정치 집회, 싸이 '강남 스타일'의 전 세계적 히트 등 지구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빠른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술혁명은 '시민 주도'의 소통과 연대'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사회·국정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 수단, 시대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기업과 정부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 국민이 중심이 되어 기업, 공공,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주체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경제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 노동, 토지, 자본으로부터 창의력, 과학기술, 융합 등으

로 이동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국민 중심의 행복사회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가치로 개방, 공유, 협력, 창조를 주목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내세운 정부가 되려면 '오픈 플랫폼'에 기반한 스마트 사회의 가치와 21세기 시대정신의 확산으로 주목받게 된 새로운 경제와 국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개방, 공유, 협력, 창조가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기반으로 국민의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 예로 광산업을 인수한 미국의 골드코프 대표 롭 매퀸은 아이디어고라(Ideagora)라는 개방, 공유, 협력의 장을 마련해 많은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34억 달러어치의 금액을 발견하고 연간 매출 90배와 주식 가치 300배의 수익을 창출할

기고 | 정부 출연연구소를 中企 발전 거름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핵심 역할은 중소기업 몫이다.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시각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려는 요구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대기업과 비교해 인력과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데다 세계경제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처지에서 기존 기술과 시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창출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정부 출연연구소다. 산업기술 분야의 14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은 2조1000억 원이나 된다. 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

술 각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은 5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활용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 연구개발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이 취약하다. 전문 제조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생산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6.8%(2010년 기준)에 불과하며 계속 낮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62%에 이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제품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미리 출시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기술 개발, 디자인 개선 등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연구기관을 중

수 있었다.
스마트 사회를 이끄는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식정보의 개방과 창조적 활용으로 맞춤형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서비스다.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는 실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모방생적 변화 순응에 기인했다. 변화 모멘텀을 잘 포착하고 잘 따라감으로써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돌파구는 변화 주도, 즉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에서 열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갈 때 행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 기술지원뿐 아니라 기술사업화, 기술기회 등 포괄적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ITRI는 개방형 실험실 등 전통적 기술 지원과 함께 기업지원 전략 수립, 개방형 혁신센터 운영 등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우리도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연구소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출연연구소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전달할 국가 허브기관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기 위해 출연연구소들이 중소기업의 거름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머리염색 1회 비용 1,000원 시대!
대통령상 수상, 국제발명대회 금상수상, 국내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

샴푸염색 한번으로 한달까지 간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절로! 3분 완성 염색효과 두배-황제

6분 완성 옷 타지 않는 거품 염모제 출시!
국내최초 1시간 허브염색을 단 6분으로
염색시 옷타지 않는 염모제 감다온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은(銀) 성분은 15-2톤 분량이 함유된 비산화형 염모제로 염색시 옷이 타지 않는 염모제로 출시된 특허받은 신제품이다.
기존의 허브염색은 1시간정도 소요 되었으나 감다온은 6분이면 된다. 풍성한 거품타입으로 흘러내림이 없고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염색 트러블과 옷으로 염색이 두려웠던 분들에게 본 제품을 적극 추천한다. 가격은 50% 할인된 59,000원에 배송비 2,500원 소비자 부담으로 공급하고 있다.
(염색시 옷 타는 고객님은 반드시 본 제품 "감다온(銀)"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시기념 사은품
4Box 16회분 추가 증정
본품 + 사은품 = 총 56회 사용 (1회 염색비용 1,000원)

본품 10Box
사은품 4Box

←색상선택 : 검정색, 진한갈색, 자연갈색

할인행사 종료 안내
착한 가격으로 시작된 이번 할인행사 기간은 20만개 판매를 마감으로 7월20일로 종료가 되며 이후에는 이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입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염색도 간단하게 머리만 감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중의 일반 염모제는 한번 염색에 평균 20일도 못가서 쉽게 탈색이 되지만 신제품 황제는 1회 염색 후 한 달 동안은 전혀 염색을 하지 않아도 처음 염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염색 시간은 단 3분 그림처럼 머리에 촉촉 바르고 바로 물로 헹구어 주면 까맣게 염색은 끝난다. 광덕신약에서 출시한 샴푸 염모제는 유일하게 특허까지 받은 자연 추출물인 뽕나무 80%이상이 주원료로 되어 있어 염색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며 부드럽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유지해 준다. 또한 두피와 모발 손상을 최소화 하였으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인체에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염모제로서 염색할 때는 머리만 염색이 되며 두피나 피부에는 염색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이 필요 없다는 점이 타 염모제와 차이를 둔다. 염모제 전문 광덕신약은

대통령상 및 국제발명대회 금상수상과 세계 발명인 협회 협회장의 특별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특히 국내에서 100대 우수 특허제품대상까지 받았다. 염색의 혁명이라 불리는 샴푸 염모제 "황제"는 가격 또한 일반 염모제에 비하면 절반 가격이다. 남성기준 총 56회를 염색 할 수 있는 분량을 59,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원 : 대양라이프
주문전화 : 1544-0563
농협계좌 : 725-01-084858(송죽회)
www.lifedy.co.kr

▲ 총 14Box 56회 사용 (남성기준)
1080g 대용량 (사은품 포함)
공급가 : 98,000 → 59,000원 (신용카드 3회 무이자)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